



기호와 해석의 몽타주
이영진 지음
홍성사

대학입시를 위해 논술 강의를 들을 때, 서울대 미학과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교수님의 말씀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때부터 “미학”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학은 아름다움을 감성적으로 인식하며, 기호와 상징의 의미를 읽어내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영화 또는 미술의 해석에서 미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평범해 보이는 기호에서도 놀라운 해석과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와 초월성

영화는 때로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다룬다. 현실 너머의 초월적인 부분은 종종 인간에게 관심과 경이의 대상이 된다. 이번 책에서 소개한 14개의 영화 중 10개의 영화가 초월적인 존재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퇴마의식, 지옥, 좀비와 같은 내용들이 다루어진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위와 같은 초월적인 존재와 관련된 질문을 할 때 생긴다. 과연 교회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본다. 사람들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기독교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질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답을 제시하려고 하기 전에, 질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중요하다.

해석의 한계와 충돌

이 책은 한 번에 14개의 영화를 소개하다 보니 하나의 내용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었다. 영화의 수를 줄이고 보다 심도 있는 해석을 진행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나의 영화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는데, 진행속도가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영화 해석에 있어 종교개혁의 세계관과 충돌하는 부분도 발견된다. 저자는 단테의 신곡을 다룬 영화인 “인페르노”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다. “실제로 현재 그 병원균이 우리 사회에 창궐하고 있다. 베아트리체를 갈망하는 희망의 정화 시간인 ‘연옥’ 즉 지옥 ‘인페르노’와 천국 ‘파라디소’의 중간 시대인 ‘푸르가토리오’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p259)” 저자는 “인페르노” 해석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연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종교개혁의 전통은 연옥설을 정면으로 부인한다. 저자의 주장은 종교개혁의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책 속의 한 줄

복수는 하나님의 것 p.32